

아시시의 부활
지거 쾨더(Sieger Köder, 1925-2015), 연도 미상, 캔버스에 유채

입당 송 | 이사 48,20 참조

환호 소리 울리며 이 일을 알리고 전하여라. 땅끝까지 퍼뜨려라.
주님이 당신 백성을 구원하셨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0,25-26.34-35.44-48

화답 송 | 시편 98(97),1,2-3 7,8.32ㄹ-4(◎ 2참조)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또는 ◎ 알렐루야.)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제2독서 | 1요한 4,7-10

복음환호 송 | 요한 14,23 참조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 음 | 요한 15,9-17

영성체 송 | 요한 14,15-16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양해룡 사도요한 신부 | 제13 관악지구장

저는 지구장이 되고 난 후, 본당 사제일 때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신앙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 문제를 좀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2)는 명령을 신앙인들이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묵상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관계의 대상은 배우자일 것이고, 다음은 자녀이며, 마지막으로 부모님일 것입니다. 과연 배우자를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한 것처럼 지금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다소 회의적으로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거침없는 말투로 대하고, 때론 화해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 상처가 마음속 깊이 남아 결혼을 후회하는 마음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커가면서 부모와는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게 되고, 세대와 문화 차이가 점점 더 벌어져 아예 대화가 불가능한 한계점까지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대한 존경과 공감이 점점 사라지고, ‘효’라는 도리가 우리와는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일상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과 관계도 요원하게 됩니다. 관계없는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복음에서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사

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는 관계를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할 점이 주님의 사랑을 언제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머물러라.”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입술로 바치는 기도 외에도 감성적이고 공감하는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성체조배일 수도, 시간 전례(성무일도), 혹은 묵주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든 시간을 내서 그분의 사랑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머물면서 모든 관계를 정리한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요한 15,11)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관계에서 오는 미움이 기쁨으로 변화되고, 사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어떤 적대적 마음도, 미움도 사라지게 되고,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요한 15,13)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부활 제6주일에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웃간의 관계를 넘어 부활의 감동이 우리 삶 속에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아시시의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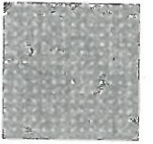
새벽녘, 아시시의 붉은 땅 위에 세워진 다미아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통과 피가 부활의 토대임을 알려줍니다. 십자가에 남아있는 못자국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세 개의 끊어진 줄은 죽음에서 온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얀 꽃들은 십자가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변화했음을 보여주며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화
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하느님도 우리의 가족이십니다



박지현 요셉피나 | 방송작가 겸 수필가

잠자는 성요셉상을 선물 받았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알아듣고, 아내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을 잘 인도하신 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 책상 위엔 잠자는 요셉상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향을 적어 그 밑에 넣어 두신답니다. 그러면 잘 전구해 주시기에 맡겨드리는데 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 청할 땐 꼭 영적인 것이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삶에 필요한 일상적인 지향들은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하는 걸로 여기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하느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하면서도 가족처럼 친밀하게 대화하거나, 일상의 사소함을 시시콜콜하게 말씀드리고 상의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가족이지만 편하고 스스럼없는 가족은 아니었던가 봅니다.

가족은 늘 함께하는 것이라는 데 이때 물리적인 차원은 물론, 정서적 심리적 관계적인 친밀함도 중요해 보입니다. 제 딸들은 맞벌이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의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엄마도 힘든데 굳이 나까지 말해서 뭐 해. 폐 끼치지 말고 내 선에서 해결해야지.'라는 생각에 혼자 감당해 왔던 모양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가족을 외롭게 한 겁니다. 딸들은 번아웃이 오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만 하느님을 찾게 된다고 합니다. 집안의 큰일, 큰 문제에 직면하다 보니, 작고 사소한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거지요. 부모 자식 간에 힘든 감정을 나눌만한 여유도 없었거니와 부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알아서 자기를 책임져야 했으니깐요. 이른바 각자도생, 스스로 살아남은 서바이벌(생존형) 가족이었던 겁니다.

가족이 서로를 공감해 주며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주님과 맺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주님께 가져가서 도우심을 청하고, 힘

들 때만이 아닌 기쁘고 편안할 때도 항상 주님을 찾고 불러보는 것 역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여 저희 가족은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보이며, 몸과 마음은 편안한지 감정 상태는 괜찮은지 물어봐 주고 공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가정에서부터 이뤄지게 되면, 하느님과 맺는 관계도 부모 자식 간처럼 가깝고 친밀하고 다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께서는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늘 강조하시며, "묵상기도란 나를 사랑하는 하느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단둘이 자주 대화를 나누며, 친밀한 우정을 쌓는 것입니다."(《자서전》 8,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지향 하나를 더하여 잠자는 요셉상 아래에 써 두었습니다. 저희 가족이 하느님을 부모처럼 만나 사귀며, 시시콜콜한 일들까지 함께 공유하고 상의하는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지요. 저희 모두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 내는 영적 고아가 아닌,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의 살가운 자녀들입니다. 하느님도 우리의 가족이십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기도 지향

5월
도사와 신학생 양성

남녀 수도자들과 신학생들이
인간적, 사목적, 영성적, 공동체적 양성을 통하여
각자의 고유한 성소를 키워
복음의 믿음직한 증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갈 곳 없는 어르신들의 천국, 모니카의 집



가을이 시작되던 작년 9월 어느 날, 한 통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갈 곳이 없어요. 부탁드립니다. 수녀님들이 좀 받아주세요.” 울먹이는 목소리로 ‘모니카의 집’

의 문을 두드린 사람은 비비아나 할머니(70

세)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다행히 빈방이 있어 어르신을 모실 수 있었지만, 어려운 형편에 아픈 엄마와 함께할 수 없었던 딸은 연신 미안해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녀님, 여기가 천국이에요. 천국!! 감사합니다.” 비비아나 할머니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십니다. “성당 다닐 때 레지오도 하고 봉사 활동도 많이 했어요.”라며 자랑스럽게 얘기하시지만, 반듯했던 자태는 어디로 가고 지금은 수시로 서랍장을 여닫으며, 무언가를 찾고 다시 숨기느라 하루를 다 보내십니다. 어느 날인가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머리를 벽에다 계속 짚어 거의 실신하기 직전에 발견되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급히 119를 불렀지만, 또다시 버려질까 두려워하며 병원 이송을 거부하셔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 없이 열심히 사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에 세상은 녹록지 않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일터에서 든든한 분을 만나 함께 살게 되셨지만 행복도 잠시,

치매라는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쫓겨난 할머니는 딸들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고 이곳, ‘모니카의 집’에 와서야 비로소 쉼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마다 다양한 사연들이 있는 어르신들의 안식처 ‘모니카의 집’은 2000년 당시 구의동 본당 주임이셨던 고(故) 김병도 몬시뇰께서 혼자 지내는 어르신들이 함께 살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면 좋겠다며 설립하신 노인 공동생활 가정입니다. 이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수녀님들께서 파견되어 지금까지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애쓰고 계십니다.

20년 넘게 무의탁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후를 위해 애써왔지만 낡고 오래된 주택 관리는 쉽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르신들께 정성을 기울이며 그들의 희노애락(喜怒哀樂)에 마음을 보태는 것은 어렵지 않았지만, 시설이 노후되어 손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상황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비라도 오면 벌어진 슬레이트 지붕 틈새로 물이 떨어져 어르신들이 넘어지실까 노심초사하고, 먼지가 쌓여 색이 바랜 벽지와 곰팡이가 피어있는 장판 때문에 어르신들의 호흡기 질환이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 넓은 세상, 그 어디에도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께서 남은 삶을 ‘모니카의 집’에서 조금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루하루 보내실 수 있도록 열악한 환경을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도움의 손길로 ‘모니카의 집’이 어르신들의 소소한 일상에 평안과 위로를 주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저희는 더 이상의 바람이 없을 것입니다.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4년 5월 4일~5월 3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모니카의 집’을 위해 씁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_ ① 인터넷 신청: www.caritasseoul.or.kr > 후원안내 > 사랑의 손길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② 전화 신청: 02)727-225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www.caritasseoul.or.kr/html/dh/spon_songil) - 사랑의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파스카: 우리를 보호하다



박진수 사도요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신약성경의 저자들은 예수님을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고백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요한 1,29)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입니다.”(1코린 5,7)

‘파스카’(nos/Pascha)란 탈출기 12장에 언급되어 있는 사건을 이야기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당신 백성을 구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그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고, 결국 하느님께서 이집트 땅에 모든 만이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집의 문설주에 바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지나가도록, 피해가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탈출 12,13) 이 때문에, 보통 파스카의 중요한 의미를 ‘지나감’(nos)이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저는 이 지면을 통해, 파스카가 지닌 의미를 성서학적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약성경의 두 가지 언어에 대해 언급을 해야 합니다. 본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요. 하지만, 기원전 2세기 무렵, 구약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구약성경은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두 가지 언어로 존재하게 됩니다. 로마제국 시대에 제국 동부 지역에서는 그리스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신약성경의 저

자들도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 종종 그리스어 번역본을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파스카의 어린양으로 이해했다면, 그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파스카에 관련된 구약성경의 그리스어 번역이 그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을 제시해 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탈출기 12장 13절의 그리스어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너희들을 보호해 주겠다.(σκεπάω)” 또한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모세는 파스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것은 주님께 파스카 희생제사이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집을 보호해 주신(σκεπάω) ...”(탈출 12,27) 이처럼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언급하고 있는 파스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파스카의 어린양으로 이해하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서 당신 삶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의 절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할 수 있다면,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를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 아래에서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파스카 희생은, 우리를 죄와 악에서 보호해 주려고 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에 우리도 기쁘게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낙태 헌법화?! 태아도 생명입니다!



지난 3월 4일 세계 최초로 프랑스에서 헌법에 낙태의 자유를 명시했어.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아일랜드 등 많은 국가에서는 임신 12-14주를 기점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야.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를 형사상 범죄로 규정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하여, 2020년 말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어. 그러나 우리 가톨릭교회는 ‘인간의 생명은 임신되는 순간부터 철저히 존중’ 받아야 하며, 태아를 비롯한 모든 생명이 그러하다고 가르치고 있어.(<<가톨릭 교회 교리서>>, 2270-2275항) 하지만 여전히 생명 존중과 여성 인권 등을 둘러싼 여러 찬반 논쟁이 뜨거운데, 생명 주의를 맞아 여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청년주보
큐알(QR)



To. 사랑하는 청년들

현대사회에서 낙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죠. 한국 천주교회는 늘 그랬듯이, 낙태의 유혹을 어렵게 물리치고 생명을 낳아 기르기로 결심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지지와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낙태로 말미암아 정서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큰 상처를 입고 화해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도 교회의 문은 변함없이 열려 있을 것이고요.

성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신자로서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큰 선물이며 행복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태어날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되길 바라며, 무엇보다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부부관계를 좀 더 성스럽고 고귀한 행동으로 생각할 줄 아는 의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 홍용기 아오스딩 신부(청소년국 청년부) -



바오로

태아라는 하나의 생명은 존중받아야 하고 우리는 그 생명을 지켜야 해. 따라서 낙태 합법화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미혼모들을 비롯해 출산과 양육에 관련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을 위해 사회적 인식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스테파노

미성년자나 미혼모가 말기거나 버린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에서 두 돌이 지난 아이들 이유식을 먹이는 봉사하고 있어. 그런데 이들이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르게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시설에서 유아기를 보낸다는 게 난 너무 슬퍼. 아이를 낳아서 평범하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해.



미카엘

난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야. 특히, 임신 주수에 따른 기준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특정 시점 이전에는 낙태가 가능하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생명이 아니었던 것이 생명으로 바뀌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베드로

낙태를 반대하지만, 아르헨티나에서는 합법화 전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 불법 낙태 시술로 많은 여성이 사망하기도 했다.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이 불법적인 수단을 선택하며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 태아와 여성을 모두 존중하며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해.

서사적 존재



신승환 스테파노 |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요즈음은 그렇지 않지만, 시골에서 자랐던 세대는 어릴 적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옛날이야기 한 두 편쯤은 기억 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굳이 ‘부엉이가 울던 밤’이 아니더라도 별자리 이야기며 ‘여우 나’ 산골 이야기 등 술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동네 전설은 물론, 앞서 살았던 조상들의 영웅담을 듣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할 수많은 역사와 교훈을 접하게 됩니다. 유목민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성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이 쏟아지는 밤에 하늘을 보면서 선조들이 겪었던 신앙의 역사를 이야기로 듣습니다. 낙원에 살았던 첫 조상 이야기를 비롯해서 형제 간 싸움 이야기는 물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났던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한 성조 이야기와 그밖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침내 하느님이 인간을 더 이상 멸망시키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하신 이야기를 듣고, 그 계약의 표시로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별과 무지개를 보면서 그 안에 담긴 장대한 서사를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 인간다운 인간으로, 또는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늘에 떠 있는 별은 천문학적으로는 아무런 관련도 없지만,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역사적 경험과 삶의 교훈,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규범 따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만들면서 인간은 비로소 생물학적 인간에서 문화적 인간으로, 또는 윤리적이며 예술적인 인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적 측면을 ‘서사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 이야기에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과 해석이 담겨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현재의 삶에 필요한 수많은 이해와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획이 담겨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다운 현재는 이렇게 과거를 해석한 이야기와 미래를 기획하는 이해가 만나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지금’, ‘여기’의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현재는, 해석하고 이해한 과거와 기획하고 기대하는 미래가 만나는 그 ‘지금’이며 바로 ‘여기’입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인간이지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도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서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서사 안에 해석과 이해가 담겨있고, 현재의 규범과 의미는 물론, 미래의 기획과 희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철학은 서사를 통한 이해와 해석의 행위를 모든 삶의 영역으로 확대한 지성적 작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소박한 의미에서이지만 ‘철학적 존재’인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서사적 본능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나요? 또 어떤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있나요? 이야기 안에는 나 자신의 역사와 미래가, 나의 윤리와 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이야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물질적 풍요로움은 말하지만 이러한 서사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은 어릴 적 나를 만들었던 그 이야기를 떠올려 보고, 우리가 들려줄 이야기를 만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인간은 서사적 존재니까요.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 성월 기도를 바쳐 주 시기 바랍니다

오늘(5월 5일)은 '생명 주일'입니다

'생명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교회 메시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림 접수: 서울주보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45년 5월 8일 심재덕 마르코 신부(37세)
- 1971년 5월 9일 윤을수 라우렌시오 신부(64세)
- 1981년 5월 7일 정규만 마르코 신부(66세)
- 1982년 5월 8일 백일성 도미니코 신부(50세)
- 2008년 5월 12일 장대익 루도비코 신부(85세)
- 2012년 5월 8일 박준영 루도비코 몬시뇰(70세)

성모 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기록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기도합니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교구청 알림

가톨릭신자 소방 공무원 1일 피정

때: 5월11일(토) / 지도: 강혁준 신부
문의(접수): 02)727-2081, 010-6234-6910 직장사목팀 큰사랑봉사회

순교자현양신심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순례 안내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35회)
때: 매월 첫째주(화) 5월7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때: 5월18일(토), 5월19일(일), 5월28일(화)
곳: 지석리, 산막골, 작은재
신청: 5월6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5만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4년 영성심리아카데미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 우리의 마음건강을 위한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하는 법, 영적글쓰기, 현대미술-신앙을 말하다, 내 안의 창조적 에너지 되찾기 등 / 문의: 02)727-2126
신청: 홈페이지(<http://seoulc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3732-5093
야외미사로 가톨릭회관에서 미사가 없습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미사

때, 곳: 5월26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문의(주관):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이인옥 그림책 원화전: 1전시실
이인옥 회화전: 2전시실
차영주 구자희 2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8일(수)~16일(목)

'슬픔 속 희망찾기' 자살유가족 5월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때, 곳: 5월18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문의: 02)727-2495 한마음함몰자살예방센터

2024 신구약 성경통독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 강의: 조창수 신부
때: 매주(월) 또는 (화) 13시~15시, 월요성경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곳: (월) 가톨릭회관 3층, (화) 예수회센터 106호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2024 · 봄' 천주교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접수: 문화학교 홈페이지(<http://culture.catholic.or.kr>)
문의: 02)727-2047

1) 신앙, 인문학을 만나다

신학	5월16일~30일(목) 19시30분~21시
----	-------------------------

2) 문화강좌

초보를 위한 디지털 펜 드로잉(보반)	5월22일~6월19일(수) 15시~17시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는 십자가의 길(재현)	5월22일~6월19일(수) 19시~21시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5월11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3층

1417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5월7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춘천교구 평강 본당, 이천 본당 / 문의: 02)727-2420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우, 이웃)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환경사목위원회

문의: 02)727-2283, 2278 환경사목위원회

1) 제46기 천주교 생태영성학교

때: 5월14일~6월18일 매주(화) 20시~21시30분(총 6회)
곳: 명일동성당 / 회비: 1인당 2만원
대상: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할 사람
내용: '찬미받으소서' 1장~6장과 후속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관련 강의, 하늘땅물벗 소개, 수료식
신청방법: 명일동성당 하늘땅물벗 푸른길벗에게 직접 신청(주일미사) / 접수마감: 5월10일(금)까지
2) 제62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우리의 지구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때, 곳: 5월16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인준단체 알림

모임

호스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5월17일(금)~20일(월)·5월31일(금)~6월3일(월)·
 7월19일(금)~22일(월),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평신도를 위한 침묵 피정(한국CLC)
 주제: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자연에서 침묵하며 나와 함께하시는 하느님 만나기
 때: 5월24일(금)~26일(일) 2박3일
 곳: 스승예수 피정의 집(여주군 강천면)
 5월16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수도승 영성을 통해 배우는 영적지혜
 때, 곳: 1차 6월19일(수) 15시~20일(목) 13시·2차 7월
 3일(수)~4일(목), 왜관 수도원 내 피정의 집(주최)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
 네딤수도원(접수 후 입금) / 회비: 8만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5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
 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1) 메주고리에 기도 일일 피정
 메주고리에 찬양기도, 성시간, 미사·안수(중식 무료)
 때: 5월6일(월) 10시~16시
2) 5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때: 5월11일(토) 12시~17시30분 / 미사·안수(중식 무료)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5월7일	신옥희	5월14일	정병덕 신부
------	-----	-------	--------

12서초지구 성령기도회
 때: 매주(월) 4월15일 14시~17시
 곳: 서초동성당 대건관 1층 / 문의: 010-7393-7924

5월13일	백운철 신부	5월20일	김현우 신부
-------	--------	-------	--------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예수마음선교수녀회)
 곳: 수원교구 양지 영성교육원 / 권민자 수녀
 문의(접수): 031)321-9054, 010-4154-0885

1박2일	5월25일~26일, 6월15일~16일
8박9일	6월23일~7월1일, 8월5일~13일
40일	6월20일~7월29일

주교와 함께하는 성모의 밤
 문의: 010-3209-3955 성모솔숲마을(대구대교구)

주교와 함께하는 성모의 밤	5월18일(토) 16시
가정성화를 위한 성모의 밤	5월1일~31일 매일 17시

예수회 침묵 피정·정기강좌(이나시오 영성연구소)
1)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
 때: 7월17일(수)~21일(일)·7월26일(금)~30일(화)
 곳: 예수회센터 / 문의(접수): 02)3276-7794
 이메일: ciskorprov@gmail.com

2)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무료 정기강좌 / 문의: 02)3276-7799
 때, 곳: 14시(파견미사 16시), 예수회센터 성당

5월9일(목)	'상처와 용서' 다시 보기	송봉모 신부
6월13일(목)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의 꿈과 환시	홍기령 교수

글라렛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때, 곳: 5월12일(일) 11시~15시, 글라렛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회비 없음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2024년 DMZ 평화의 길
 대상: 초3 이상 누구나(차수별 40명 선착순)
 때, 곳: 5월24일(금)~26일(일), 파주-연천-철원
 회비: 15만원 / 문의: 031)941-2766(www.pu2046.kr)
 주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부 나들이 피정
 강사: 홍성남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이성호 박사, 이요셉 소장, 김미희 강사
 계좌: 신협 131-022-218086 가정선교회(입금 후 연락)
 회비: 20만원(1부부) / 비신자 참여 가능
 때, 곳: 5월25일(토) 14시~26일(일) 17시, 아론의 집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010-3661-
 5500 고영민 부회장(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22회 젊은이 성령축제 참가자 모집
 성령강림대축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성
 령 하느님을 느끼고 싶은 모든 가톨릭 청년들
 을 초대합니다 / 회비: 1만원(점심식사 제공)
 주제성구: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골로 3,13)
 때, 곳: 5월19일(일) 10시~17시, 파주 DMZ생태관광지원센터
 문의(접수): 010-7185-5368 청년성령채신봉사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5월22일~24일(성모의 밤)·5월26일~29일(추자
 도)·6월21일~23일·7월1일~3일(추)·9월2일~4일
 ·9월7일~9일, 우도해변 포함 7월12일~14일·7월
 20일~22일·7월25일~28일·8월1일~4일·8월6일
 ~8일·8월10일~13일·8월24일~26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
 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돌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자연 순례	5월27일~29일, 6월10일~12일, 6월22일~24일
여름 특별 피정	7월25일~28일, 8월2일~5일, (우도 자유 일정 포함) 8월8일~10일, 8월14일~17일
성지순례	5월19일~22일, 6월3일~6일, 6월15일~18일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곳: 전철 1·7호선 온수역 10분 거리 / 010-6890-7223

엄마와 딸(미혼) 피정	5월11일~12일, 7월6일~7일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5월24일~26일, 6월21일~23일
세월의 지혜영성 피정	7월15일~19일 / 65세 이상
영신수련 8일 피정	8월1일~10일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6월7일 10시~15시30분
대내외영성수련 피정	5월10일(금)~12일(일)
은인 피정 및 성모성월 기념미사	5월18일(토) 10시~17시
대침묵피정	6월21일(금)~23일(일)
성지순례	5월22일(수)~24일(금), 서울- (성김대건 발자취를 따라서) 광주 / 문의: 062)571-5004

혼인성소 찾기 피정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최영민 신부(예수회)
 문의: 010-3173-2665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영혼 상처의 특효약은 통회이다 통회 눈
 물은 내 영혼을 씻기 때문이다 / 회비: 1만원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때, 곳: 매일 둘째주(토) 5월11일 14시~18시, 구산성지
 찬양: 고영민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평화의 섬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강우일 주교와 함께 걷고 듣는 제주 이야기
 대상: 개인, 단체(구반장 맞춤 피정 환영)
 때: 5월23일~25일(성모의 밤)·10월2일~4일·10월
 25일~27일·11월1일~3일·11월15일~17일
 곳: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말씀: 김중화 신부(작은형제회) / 문의: 02)753-8765
 주제: 찬미 받으소서 '생태와 희망'
 때, 곳: 5월12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마르코(예수님 수외와 함께) 무료 강좌
 때, 곳: 매주(목) 10시~12시(미사 포함), 성 바오로
 수도회(서울시 강북구 송죽동) / 문의: 강: 010-
 6287-9753 김길수 수사(성바오로수도회 영성센터)

성음악클래식기타로 주님을 찬양하는 주법
 때: (월)·(화)·(수)·(금)·(토) 13시30분
 곳: 삼동역 본회 / 문의: 010-9297-1543 이화진
 주최: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지도: 김정희 신부)

서울대교구 38기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
 때, 곳: 5월26일~6월23일 매주일 13시30분~18시
 30분(5주간), 잠실7동성당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sufather2009@naver.com)

해외가톨릭사립학교 학생 모집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 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여름캠프	초3~중2 / 시카고, 더블린, 보스턴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이콘 교실(입문반)
 강사: 오승민 수사(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김경미
 때: 5월21일(화)~24일(금) 개강(12회 강좌)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 인원: 각 반별 0명
 회비: 40만원(이콘판, 개인본 별도) / 문의(접수): 02)6364-
 2204, 010-3781-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무실

(화)	오후반 14시~17시
(수)	오전반 10시~13시, 저녁반 18시30분~21시30분
(목)	오전반 10시~13시 (금) 오전반 10시~13시

제24회 가톨릭명회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 프(디즈니랜드, 실리컨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립투어)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이콘강습(투스 포교 베네딕도회 서울 본원)

김 헤르만 수녀 / 문의: 010-6746-1997 (문자)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모님과 함께하는 치유세미나

강의, 율동, 찬양, 미사, 고해성사

때: 5월3일~31일 18시~22시(미사 21시)

교통: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5528 성령봉사회관 하차

문의: 010-3242-6868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2024년 후기 신입생 모집

전공: 독서교육, 상담교육, 유아교육, 진로진학상담,

특수교육, 직업특수교육, 평생교육, 한국어교육

모집: 4월29일(월)~5월12일(일) / 면접: 5월31일(금)

홈페이지(https://ged.catholic.ac.kr) 참조

문의: 02)2164-4176, 4787, 4173

학교 밖 청소년 및 자원봉사자 모집

수업참여대상: 학교 밖 청소년(14세~24세)

수업내용: 검정고시·수능, 기타, 원어민영외회

화, 토론·글쓰기, 사진, 한국사능력검정, 바리

스타, 코딩 등 / 봉사자모집: 검정고시(과학·수학),

수능학습지도, 통기타레슨 가능한 분

문의: 02)382-5652 청소년문화공간JU

2024년 순교영성 아카데미(순교영성특강)

'순교영성'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특강(성경·교의·역사·영성·인문사회과학 등)

때: 매일 둘째·넷째주(목) 14시~16시

곳: 순교성지 새남터성지 / 홈페이지(www.kmartyr.com)

상세프로그램 확인·수강신청 가능

문의(접수): 02)3275-1485 순교영성연구소

모집

국악성이 한길합창단 단원 모집

때, 곳: 매주(금) 19시, 혜화동 / 지도: 강수근 신부

오디션곡: 가톨릭성이 중 1곡 / 010-2279-0255

아퀴나스 합창단 단원모집

아퀴나스 합창단(67년 창단, 교구 소속 평신도 단

체 / 담당: 최호영 신부)이 30~40대 세대원(각 파트

약간명)을 찾습니다 / 오디션: 자유곡(악보 지참)

문의: 010-8000-3194 총무

가톨릭시니어합창단 저녁반 창단단원 모집

성가발성도 배우고 성지순례도 함께하는 삶의 동행

대상: 55세 이상 누구나 / 연습: 매주(수) 19시

곳: 서강대 앞 연습실 / 오디션 면제기간

문의: 010-5245-2848 심준보(평화를 노래하는 가

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40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6월15일(토)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6월13일까지 이메일 접수(명동성당 홈페이지(PC

버전) 단체 모집 / 문의: 010-3211-5195 (문자)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열린미사 / 문의: 02)953-0613

주례: 권태문 신부(골롬반회) / 성모성월 미사

모임: 담당 곤잘로 신부(성소자,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때, 곳: 5월18일(토) 16시, 골롬반 신학원(전철 4호

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누구나 참석

서울고속버스터미널(준)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원 남산방향)

(화-금)	12시	(일)	11시·17시·21시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안내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상담·문의: 02)990-9366 (월~금) 10시~16시

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6355-9782 박 레지나(상담자)

대전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전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점,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전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sort.modoo.at

청소년 언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종합심리검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

시오회가 서울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

료), 종합심리검사 / 문의: 02)2051-3743

곳: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 매체상담 회당 3만

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

부지원 취약계층 및 시설 거주 청소년은 무료 지원)

가리마스 알코올회복센터 / 문의: 02)521-2364

알코올 의존자와 가족분들, 술로 인한 상처로

부터 회복의 길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알코올 의존자 주·야간교육 및 가족교육 운영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

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를 시작합니다

도움을 겸손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전진산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jsscen.or.kr)

TCI(기질과 성격)를 통한 자기이해와 타인이해	5월18일(토) 13시~16시
낮의 무의식, 모래놀이치료-	5월21일(화) 10시
진정한 본성과의 만남(5월 특강)	~12시 / 회비: 2만원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홈페이지(catholic.ac.kr) 모집공고-성신광장-가톨릭

대학교 성신교정 참조 / 문의: 02)740-9707, 9708

유락종합사회복지관 조리사 모집

근무: (월~금) 7시15분~13시45분

대상: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1명 / 문의: 02)2235-4000

급여: 2024년 서울시 어르신 급식사업 조리사

인건비 기준(1,882,300원-수당 포함, 세전 기준)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 주방 근무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 근무자 0명

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

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

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5월19일(일)까지 우

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

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사당동성당 방호원(주간) 계약직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신자로 건강하고

성실한 분 / 업무: 시설물 관리 및 유지, 방호,

미화 등 전반적인 시설관리

근무: 6월1일부터 주 48시간 / 서류: 응시원서(서울대

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운전면허 1종 면허증(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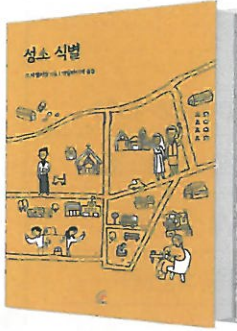
5월14일(화)까지 우편(우 07014, 서울시 동작구 동작

대로 13길9) 및 이메일(sdcaatholic@naver.com) 접수

서류 심사 후 면접(개별 연락) / 문의: 02)587-2291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호준 신부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이 안젤로 신부(성소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매일 둘째주(일) / 시간 상의	수녀원(서울)	010-5604-1882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5월11일(토) 14시~12일(일) 13시	본원(경북 왜관)	010-3211-5195 (문자)
성심수녀회	5월18일(토) 14시~17시	본원(용산구 원효로 19길 49)	010-9284-0304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서울)	010-8563-6875, 02)941-4139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5월18일(토) 15시	성북동 수도원(선잠로 9-6)	010-8573-0567
천주교서울교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5월11일(토) 13시	아프리카잠비아선교후원회(가톨릭회관 526호)	010-3679-7198 강피아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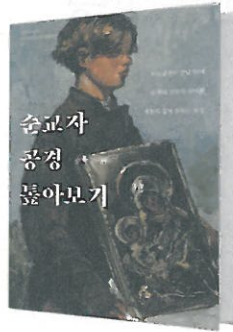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성소 식별

조지 엘리엇 지음
바오로딸 | 208쪽 | 1만3천원
문의: 02)944-0944

성소 식별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길을 찾아가며 자유롭게 응답을 드리고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 책은 성소 식별에 필요한 실질적인 안내서로 누구보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성소를 식별하고 그 성소를 향한 걸음을 견도록 용기를 준다.



신간
순교자 공경 훑어보기

관영파 지음
흐름출판사 | 424쪽 | 2만5천원
문의: 063)287-1231

이 책은 초기 교회의 박해 과정과 순교자 공경의 다양한 양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순교자 공경의 의미와 지향점을 탐구한 글이다. 타 종교와 학계, 일반의 의문에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역사와 기록을 통해 답하며, 교회 내부의 논란도 편견 없이 다루고자 노력하였다.



신간
평화와 화해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 편찬
한국천주교주교협의회 | 152쪽 | 5천원
문의: 02)460-758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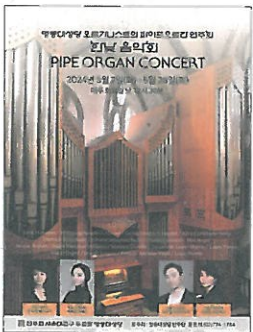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는 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가 비매품으로 발행(2022년 6월 25일)하여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교재로 사용하였던 《평화와 화해》를 민족화해위원회 편집 위원들의 수정 작업을 거쳐 새로이 발행했다. 이 책은 성경, 가톨릭 사회 교리, 역대 교황님들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 등을 담고 있다.



음악회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단과 함께하는 성음악 미사와 작은 음악회

때: 5월 31일(금) 오후 7시 30분
곳: 목동성당 대성전 / 전석 무료
문의: 010-9464-06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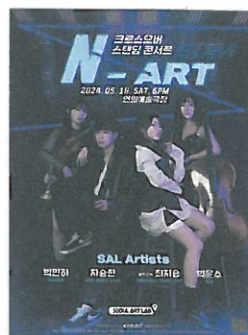
40년 전통의 무반주 다성음악전문,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단과 함께하는 성음악 미사와 작은 음악회가 5월 31일(금) 오후 7시 30분, 목동성당 대성전에서 진행된다. 신기호 신부님의 지휘로, 이탈리아 추기경 도메니코 바르톨루치의 선종 10주기를 맞아 그의 천사미사곡과 '오, 거룩한 잔치여'(O Sacrum convivium) 외 무반주 다성음악곡들이 연주된다.



음악회
한낮 음악회
명동대성당 오르가니스트들의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

때: 5월 7일~28일 매주(화) 12시 30분
곳: 명동대성당 대성전 / 전석 무료
문의: 02)774-1784, 010-4738-1258

2024년 명동대성당 한낮 음악회가 개최된다. 5월 7일~28일까지 매주 화요일 12시 30분에 열리는 이 연주회에서 명동성당의 4인의 오르가니스트(정수정, 서혜윤, 최수영, 이윤정)가 부활, 성령 강림, 성모 성월, 삼위일체를 주제로 한 오르간 곡들을 연주한다.



콘서트
크로스오버 스탠딩 콘서트 'N-ART'

입장권: 전석 스탠딩 6만원
문의: 0507-1496-2026 서울아트랩(www.seoulartlab.kr) / 예약: 인터파크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참조시 주보 1부로 4명 20% 할인

"지금까지 이런 음악, 이런 무대는 없었다." 세계 최초 스탠딩 콘서트로 즐기는 '국악+클래식+EDM' <크로스오버 스탠딩 콘서트 N-ART>이 5월 18일(토) 오후 6시, 연희예술극장에서 있다. 국악, 클래식 장르의 명곡들을 전자음악과 접목, 서울아트랩 스타일의 크로스오버 음악을 선보인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3월~4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이재희	에밀리아	1-1	백정환	가브리엘	2-2
조택희	스테파노	3-3	이수홍	사무엘	3-4
심재진	다니엘	4-3	홍성수	디모테오	4-4
이승훈	요셉	4-4	전하영	스콜라시카	5-1
권지용	베드로	5-2	이선미	아네스	5-2
송민석	라파엘	5-2	장희원	젬마	6-5
장준원	프루멘시오	6-5	김창하	프란치스코	6-5
황인천	미카엘	7-4	최다연	프란치스카	7-5
원미아	소피아	8-1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5월 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중

◎ 유아세례 : 5월 5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연령회 미사

일시 : 5월 7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번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 미사(선종하신 분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5월 15일(수)은 10시미사가 없습니다. 사무실 휴무입니다.

◎ 여성 구반장 야외행사

일시 : 5월 17일(금) 오전 7시 30분 출발
장소 : 용평

◎ 바오로시니어대학 봄소풍

일시 : 5월 17일(금) 오전 8시 30분 성당출발
장소 : 갑곶성지

◎ 반디주일학교 봄소풍

일시 : 5월 19일(주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 명동성당
접수및문의 : 바오로비안네 (010-7207-9295)

◎ 남성총구역 축구대회

일시 : 5월 26일(주일) 오후 2시~5시
장소 :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문의 : 남성총구역장 (010-4913-1158)
* 많은 형제님들의 참여를 희망해 봅니다.

◎ 남성울뜨레야

일시 : 5월 19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문화학교 6월~8월 학생모집 (주일학교)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한글캘리그래피
개강 : 6월 1일(토)부터 / 매주 토요일 수업
접수기간 : 재접수 - 5월 15일(수)~19일(주일)
신규접수 - 5월 20일(월)~24일(토)
접수및문의 : 문화학교 오픈채팅방에 신청
아네스 (010-4538-5665)



◎ 청년 레지오 셋별Pr. 단원 모집

신앙의 모범이신 성모님을 따라 함께 더욱 더 행동하고 기도드릴 청년 단원을 기다립니다.
회합 : 매 주일 오후 4시 30분 / 206호
문의 : 안토니오 단장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4. 28)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02	694 (34.7%)	648 (32.4%)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감사헌금

故 김기곤 아네스 상가 삼십만원
故 이종만 라파엘 상가 삼십만원

◎ 감사헌금 (4월 22일~28일)

곽선모 오천원 익 명 사십육만원
익 명 일십만원 홍선호 오만원
성승명 일십만원 함영동 일만원
한인경 이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5주일)

교 무 금 11,557,000원
주 일 헌 금 6,306,300원

입당 414	봉헌 244,511,211	성체 163,188,178	파견 135
--------	----------------	----------------	--------



주님은 당신구원을 민족들의 눈앞에 드러내셨네